

# ‘전지훈련으로 북적북적’ 실력도 경제도 순항 중

## 선수단 가족 동반 방문 늘며 체류형 관광·소비 확대, 경제효과 53억 전망

강진군이 지난 1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2026년 동계 전지훈련이 2월 초 현재까지 큰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축구·배구·테니스·배드민턴 등 4개 종목에서 122개 팀, 2,768명의 선수단이 강진군에서 훈련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2026년 제73회 3·1절 기념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참가를 앞두고 13개 팀, 200여 명의 선수들이 사전 훈련을 위해 강진군에 머물고 있다.

평균적으로 팀당 약 9일간 체류하는 전지훈련 운영 방식이 정착되면서, 단기 방문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난 체류형 전지훈련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따라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들의 체류가 이어지며 숙박업소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군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경기장과 부대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

에 힘쓰며 특히 축구 전지훈련의 경우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제설 작업과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훈련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군은 전지훈련 기간 강진을 찾는 선수단과 함께 방문하는 학부모·보호자들이 지역 관광과 소비를 보다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강진 반값여행' 정책 홍보에 함께 힘쓰고 있다.

반값여행 참여시 숙박·음식·관광시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전지훈련 참가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체류와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전지훈련 선수단 체류에 따른 지역 내 소비 규모는 약 31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남은 일정이 진행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철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지훈련으로 인해 숙박·외식업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월부터는 볼링·테니스·배구·배드민턴·사이클 종목 전지훈련을 비롯해 동계 초등 축구 페스티벌과 동계 스피디 유소년 스토브리그 등 주요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동계 전지훈련 기간 동안 약 340개 팀, 5,909명의 선수단이 강진군을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한 경제효과는 약 53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남은 기간에도 현장 점검과 시설

관리, 안전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 전지훈련 운영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은 "동계 전지훈련이 중반을 지나면서 선수단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현장 중심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전지훈련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보성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실' 운영

### 2월~4월, 8개 경로당 순회... 찾아가는 교육 '주민 건강 강화'

보성군은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보건진료소 관내 8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해 경로당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추진된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며,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동맥경화증 등 선행 질환까지 포괄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건강 위협 요인으로, 예방과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교육은 경로당별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심뇌혈관질환의 개념과 주요 위험 요인 교육, ▲생활터 주변 낙상 예방 교육, ▲뇌졸중·심근경색 전조증상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 ▲공에 체험 및 원예 체험, ▲생활 속 운동 실천, ▲영양교육, 금연 및 절주 교육, ▲우울증 예방 교육 등이다.

군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평소 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예방 관리 교실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중증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김윤기 기자

완도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여객선터미널, 빙그레시네마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이행을 실행했다. 점검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 완도군, 설 명절 대비 다중 이용 시설물 안전 점검

### 소방서,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반 구성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했으며,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

를 꼼꼼하게 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완도 소방서와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자체의 안전

성뿐만 아니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홍용 안전총괄과장은 "다중 이용 시설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성우 기자

영암군이 (재)전남인력개발원과 '2026년 영암군 청년 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된 영암군은, 이번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 취업 동기 고취를 위해 밀착 상담,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구직 단념 △보호 종료 5

## 영암군,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고용노동부 공모 3년 연속 선정... 인센티브 최대 300만원 지급

년 이내 자립 준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복합 이탈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역 특화 △주 30시간 미만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해 신청일 기준 18~34세의 미취업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

다. 참여자는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유형으로 나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수 시 최대 250만원의 참여수당과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신청 접수는 고용24, 네이버폼, 이메일(jnhrd-job@naver.com) 등 온라인과 전남인력개발원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청년 스스로 진로를 찾고 삶의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순천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시는 물가 관련 부서로 구성된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6대 설 성수품(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해 총 2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

## 순천시, 2026년 설 명절 물가안정 관리 대책 추진

### 특별대책반 운영...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모니터링

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물가 합동 점검반은 상거래질서,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업(숙박, 외식업) 총 6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

이다. 아울러 명절 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원산지·가격표시제 이행, 바가지 요금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도 실시한다. 해

당 캠페인은 7일 아랫장, 10일 웃장에서 소비자단체와 물가조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물가안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일상 속 불의의 사고, 장성군이 함께 책임진다

###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8종으로 확대 시행

장성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28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이 각종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정해진 보장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며, 장성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포함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장성군이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26종 보장에 온열질환 진단비와 한랭질환 진단비 항목이 추가됐다.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NH농협

손해보험, 1644-9666)로 보험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액은 보장 항목에 따라 다르다.

항목별 보장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군민안전보험'을 찾아보거나 장성군 재난안전과(061-390-7018)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정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